

아쉬운 3년만의 K리그1 복귀전...광주FC '쓴 보약'으로

펠리페·마르코 투툼 활약 미흡
수비벽에 막히며 답답한 경기
동갑내기 사령탑 지략 대결 관심
광주 홈 개막전서 성남에 0-2 패



동갑내기 사령탑의 지략대결로 관심을 모은 광주FC 박진섭 감독(왼쪽)과 성남FC 김남일 감독.



9일 오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1 광주FC와 성남FC의 경기에서 성남 김영광 골키퍼가 광주 펠리페의 헤딩에 앞서 편칭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가 K리그1 복귀전에서 쓴 보약을 마셨다. 광주가 지난 9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2020 K리그1 개막전에서 0-2패를 기록했다. 3년을 기다린 K리그1 복귀전이었지만 'K리그2 우승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손발이 맞지 않은 광주는 전반 4분 만에 양동현의 헤더로 실점했고, 전반 11분 양동현에게 두 번째 골을 내줬다.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광주는 54%의 점유율 속 10차례 코너킥 상황을 맞았지만 경기 흐름을 뒤집지 못하고 무기력한 패배를 겪었다.

특히 승리의 주역인 '독점왕' 펠리페가 성남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여주지 못했다.

성남 수비진에 둘러싸인 펠리페는 후반 38분이 돼서야 처음 슈팅을 날렸다. 이마저도 원발에 빗맞으면서 상대를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광주가 올 시즌 마지막 퍼즐로 영입한 새로운 외국인 선수 마르코 코스타리카 국가대표의 위엄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진섭 감독이 성남을 뚫기 위해 내세운 펠리페와 마르코 '투툼' 카드가 상대 수비벽에 갇히면서 광주의 첫 경기는 답답한 흐름 속에 끝났다.

이번 개막전은 동갑내기 사령탑의 지략대결로도

눈길을 끌었던 경기다.

현역시절 각각 '괴물'이와 '진공정소기'라는 애칭으로 한국축구 수비를 책임졌던 박진섭 감독과 김남일 감독. 박 감독에게는 K리그1 데뷔전, 김 감독에게는 감독 데뷔전 무대였다. 결과는 지난해 전남 코치로 유심히 광주를 지켜보던 김 감독의 승리였다.

김 감독은 "이렇게 빨리 승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초보감독이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난다"며 경기가 끝난 뒤에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또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잘해냈다. 첫 골이 일찍

터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지난해 전남에 있으면서 광주라는 팀을 상대로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스타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은 잘 아는 상대에 맞춰 초반에 공격을 펼친 뒤 '펠리페'를 집중 견제하며 승리를 가져갔다.

박 감독은 "전술적인 실패"였다고 패배를 자인했다.

박 감독은 "전체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잘 소화하지 못했다. 전술적인 실패였다"며 "후반에 빨리 전술적인 변화를 줘고 만회하려고 했

는데 초반에 실점했던 게 아무래도 영향이 컸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역시 펠리페와 초반 실점이 아쉬움이 됐다.

박 감독은 "펠리페 공격 루트를 고민했는데 선수들 컨디션이 좋지 못했다. 여러 계획은 있다. 다른 전술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마르코가 안 되면 뒤에 다른 선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 같다.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선수들이 작년에 골을 많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실점하게 되면 흔들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초반 실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격적인 성향의 스트라이커 두 명으로 '다공'을 준비했지만 허리 약점, K리그1 경험 부족, 원문상의 부상 공백 등을 노출하면서 광주는 아쉬운 K리그1 복귀전을 치렀다.

"모든 게 실패했다"며 냉정하게 개막전을 평가한 광주가 성남전 패배를 보약삼아 K리그1 무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웃음 되찾은 이강인...발렌시아 두달만에 훈련 재개

밝은 표정으로 그라운드 뛰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 선수들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모여 훈련을 시작했다. 이강인(19)도 밝은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달리며 시즌 재개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발렌시아는 9일(이하 현지시간) 소속팀 선수들이 팀 훈련장인 CD 파테르나에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구단은 홈페이지에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찍은 사진을 실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영상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12일 중단 결정을 내리던 프리메라리가는 6월 중에 2019-2020시즌을 재개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각 팀은 최근 속속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발렌시아 선수들이 팀 훈련장에서 몸을 풀 것은 시즌 중단 결정이 난 3월 12일 이후 두 달 만이다. 시즌이 중단되자 발렌시아도 이튿날부터 구단

훈련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선수들을 돌려보냈다. 이강인은 훈련 중 오른 발목을 다쳐 당시 훈련장을 떠날 때는 목발에 의지한 상태였다.

시즌 중단은 이강인에게 부상에서 회복할 시간을 줬다.

이날 발렌시아 구단이 공개한 훈련 사진과 영상에서 이강인은 손질할 시간이 없었던 탓인지 머리는 덩수룩했지만 밝은 표정으로 가볍게 그라운드를 뛰었다.

발렌시아에서는 지난 3월 프리메라리에서 뛰는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1군 선수단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전체의 35%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린 바 있다.

이후 4월 초 시행한 2차 검사에서는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훈련 재개를 앞두고 최근 다시 받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

훈련장에 다시 모였지만 선수들은 보건당국과 리그의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약 45분씩 따로 훈련했다.

/연합뉴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발렌시아 소속 이강인이 지난 9일(현지시간) 팀 훈련장인 CD 파테르나에서 약 두 달 만에 훈련을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수 전남탁구협회장, 대한탁구협회 공로상 수상

박용수(사진 왼쪽) 전남도탁구협회장이 대한탁구협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용수(65) 회장은 최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탁구협회 2019년 정기유공자표창식에서 지방 탁구협회의 활성화와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2016년 전남탁구협회장으로 취임한 박 회장은 한려대 남저탁구팀을 창단하고 전남지역 생활체육 탁구 활성화에 기여했다.

박 회장은 탁구선수 출신으로 현재까지도 생활체육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고 있다. 탁구 저변을 넓히기 위해 동호인 대상 재능기부 레슨도 하고 있다.

박용수 회장은 "공로상을 주신 탁구인들에게 감



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남탁구와 전남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유럽 빅리그 중 가장 먼저...분데스리가 16일 재개

코로나19를 이겨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시즌 재개일이 오는 16일로 최종 확정됐다.

분데스리가 사무를 총괄하는 독일축구리그(DFL)는 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9-2020시즌 잔여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즌은 26라운드부터 당초 대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26라운드 9경기는 오는 16-18일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최종 라운드 9경기는 내달 27일 열린다.

이 중 주중 라운드는 28라운드와 32라운드, 2차 레이며, 나머지는 주말에 치러진다.

한국 기준으로는 16일 밤 10시 30분에 26라운드 9경기 중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살게오 4 등 5경기가 kick오프한다.

현재 리그 8연패를 노리는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55점을 쌓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도르트문트(51점)와 라이프치히(50점)가 2, 3위에 자리해 있다.

5월 중순 이후 무관중 경기를 조건으로 프로축구 재개를 허용한다고 독일 정부가 공표한 뒤 일간 빌트, 로이터통신 등이 DFL 관계자를 인용해 리그

재개일은 금요일인 15일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DFL이 최종적으로 밝힌 재개일은 토요일인 '16일'이다.

DFL은 "정부 발표 뒤 집행위원회를 열어 '15일 이후' 리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1:2부 36개 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총회를 화상통화로 열어 재개일을 16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데스리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던 3월 13일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독일이 유럽 국가 중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해내면서 유럽 5대 '빅리그' 중 가장 먼저 정상화하는 리그가 됐다.

/연합뉴스

마이클 조던 운동화 경매에...낙찰가 1억8000만원 예상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이 신었던 운동화 한켠레가 소더비 경매에 나왔다.

소더비 경매장은 조던의 사인이 있는 나이키 운동화를 9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경매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프로농구(NB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단된 사이 조던의 TV 다큐멘터리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같은 조던의 인기 부활에 편승해 이번엔 경매에 나온 운동화는 15만달러(약 1억8000만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더비 경매에서는 조던의 나이키 운동



화가 43만7500달러(약 5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3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마이 스파이, 호텔 레이크
4관	1917, 라라랜드, 알리타: 배틀 앤젤
5관	마이 스파이, 호텔 레이크
9관	레이니 데이 인 뉴욕, 프리즌 이스케이프, 마션
7관 씨네커를	패왕별희 디 오리진, 호텔 레이크 리벤지
8관 씨네커를	저 산 너머, 나의 청춘은 너의 것, 헌티드 파크, 슈팅걸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II - 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즐거움
문화산책